

연령별 규제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Difference of Regulation Recognition among Generations

최성락

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Seong-Rak Choi(haihabar@gmail.com)

요약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세대 간 차이이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 연령대별로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대상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규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별 규제인식 차이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규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석결과 규제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규제의 전문성 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50대와 20대가 서로 반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해서 연령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규제 정책 제정 및 집행과 관련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중심어 : | 규제 | 규제 인식 | 연령 | 연령 차이 | 인식 차이 |

Abstract

The difference of generation is the main cause of society transition. If we know about the gap of generations, then we know where we go in future. This study focus on the differences of a regulation recognition among the generations. When we understand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 recognition among the generations, we can realize the trait of regulation in society.

In result,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of regulation recognition among the generations. The older they are, the more they are positive to regulation. And the younger they are, the more they are negative to regulation. In particular, 50's generation have the opposite regulation recognition to 20's generation in specialty of regulation and in a conglomerate regulation.

■ keyword : | Regulation | Regulation Recognition | Generation | Difference of Generation |

1. 서론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세대 간 차이이다. 세대 간 차이, 연령대별 차이에 의한 사회 변

화는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대 간 차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 연령대별로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 본 연구는 2015년도 동양미래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1월 20일

수정일자 : 2016년 03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3월 03일

교신저자 : 최성락, e-mail : haihabar@gmail.com

것은 그 대상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규제 개혁이 큰 정책적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규제 개혁은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개혁 과제로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규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는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그 규제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본다. 그 규제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과 규제를 통하여 손실을 보는 집단 간 대립으로 보는 견해들이 주로 논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중심적 접근 이외에, 연령대별, 세대별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규제에 대한 인식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근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하였고, 따라서 각 세대별 사회 인식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정치적 견해, 문화적 경험, 역사 인식 등에 대해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정치, 경제 부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규제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대별 규제 인식 차이가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개혁에 대한 분쟁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규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를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로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규제의 정당성, 규제의 집행성, 규제의 내용, 규제 증가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연령대별 차이

사회과학에서 연령대별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연령대별 차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한국에서 연령대별 차이에 초점을 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 경제, 정치 등과 관련해서 연령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먼저 범죄와 관련되어 연령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철현(2001)은 외국의 경우 20대에 범죄율이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는 감소되는 양태를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군대 입대 등의 영향으로 외국보다 범죄 연령 곡선의 피크가 더 늦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 이민식 외(2009)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며[2], 이영란(2011)은 노인 연령별 범죄 추이와 강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범죄의 나이대를 현재 60대에서 70대로 높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3]. 정은경(2012)는 한국에서 연령별 범죄율은 30대와 4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이유를 보여주었으며[4], 정은경(2014)에서는 재산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10대는 절도, 40대에는 사기 범죄가 많아 40대에 범죄 피크 현상이 나타나는 한국의 특성을 설명하였다[5].

경제적 측면에서 연령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김진영(2007)이 연령대에 따라 건강 격차가 심해지는데, 이의 주요한 요인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6]. 김기승·조용수(2007)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빈곤 탈출 확률은 높아지고, 또한 연령대에 따라 빈곤 탈출 영향 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7]. 김진욱·정의철(2010)은 도시 가구의 소득을 분해하여 가구주 연령에 따라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8], 김기승(2011)은 연령 세대별 고용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9]. 그리고 백학영(2013)은 연령집단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0]. 또한 Davids, Matthews & Wong(1991)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노동일을 그만두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11], Labich(1993)은 50대까지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2].

정치적 측면에서도 선거 등 실질적 이유에 의해 연령대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갑운

(2008)은 한국에서도 연령에 따른 투표 참여율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13]. 김재한(2011)은 나이가 많을수록 도시의 투표율은 낮고 시골의 투표율은 높은 현상이 나타나며, 젊은 유권자들은 오히려 도시에서 투표율이 높은 현상이 발견된다고 보았다[14]. 그리고 지병근(2013)은 연령대별로 투표 효능감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15], 최유정·최선희(2013)은 세대별로 국제관계, 정치 성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였다[16].

2. 규제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

규제의 집행자와 규제 대상자 사이에 규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17].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도 많은 규제 개혁을 하였지만, 상공회의소 등 전국의 주요 기업들은 규제개혁 평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18]. 이와 같이 규제 평가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가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9].

규제 인식을 연구한 주요 선행연구는 크게 규제를 집행하는 규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그리고 각 개별적인 규제에 대한 규제 대상자의 인식 조사에 대한 연구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규제 집행 규제 공무원에 대한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규·이성로(2001)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18]. 조사 결과 규제 개혁에 대해 관료의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 체계나 신념 체계가 규제 개혁과는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효진(2004)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개혁에 대한 일선 관료들의 인식 유형을 살펴보았다[20]. 관료들은 규제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 개혁이 부정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민간 부문에 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자 하는 규제 개혁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이해영·김정혜(2007)은 규제영향분석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영향

분석 과정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업이 수행되었는지를 관리 과정, 구조 및 시스템 측면, 자원 및 HRM 측면, 환경 측면에서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21].

그리고 최성락 외(2014)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들은 규제 개혁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부 감사를 더 신경쓰고 있으며, 규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 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22].

이러한 규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는 규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규제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각 개별적인 규제에 대한 규제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경우가 많이 있다. 각 개별적인 규제에 따라 정책 대상자 등의 인식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별로 규제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를 살펴보면, 김봉현·유중근(2003)은 비교 광고 규제 변화에 따른 광고 실무자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비교 광고 규제가 변화된 이후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광고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23].

이병식(2003)은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규제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24], 최창호(2006) 연구에서는 규제 완화 전과 후에 제조업 화주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25].

이수범(2007)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 규제에 대해 광고인과 소비자의 인식을 서로 비교하였다. 광고인은 약한 규제 수준을 선호하고 있었고, 소비자는 강한 규제 제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광고인은 전문가들을 통한 규제를,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규제를 선호하는 특색을 보여주었다[26].

옥화영(2008)은 공정거래정책 규제에 대해서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규제자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 그리고 피규제자인 기업의 임직원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규제자는 정책의 필요성과 명료성, 공정성, 일관성, 투명성 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피규제자들은 정책의 필요성, 규제의 명료성, 공정성, 일관성, 투명성 등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27].

또한 이미홍·조영태(2008)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규제 지역별 주민의 제도 인식 차이를 검토하였다.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었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평가가 높은 특성이 존재했다[28].

이외에 박우귀·권상희(2014)도 방송통신내용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연구하였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간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율규제 및 공동규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29].

그리고 안승호 외(2012)는 자연환경 규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규제 순응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30].

위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사회과학에서는 연령이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 범죄, 경제 등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령별로 적합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상대방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사회과학에서 중요시되고 있으나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령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규제가 국민의 연령대에 따라 수용성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연령대에 따라 규제의 집행도 등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만약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현재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 홍보, 규제 순응 정책 등도 연령대별로 차이를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규제 인식에 대해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규제의 수립 및 집행,

평가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지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연령대에 따라 정부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규제 수립, 집행, 순응 정책의 효과성 등에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 일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규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규제의 엄밀한 의미에 대해서는 각 개인마다 그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31], 여기에서는 국민들의 일반적 규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정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규제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의 집행, 규제의 내용 등 규제의 일반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전국 국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 인원수로 볼 수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문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업체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각 문항별로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간이다.

1,000명의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등에 대해 기본적인 표본 분포를 만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설문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응답자 기본 통계

구분		응답 수	%
성별	남성	504	50.4
	여성	496	49.6
연령대	20대	226	22.6
	30대	268	26.8

	40대	281	28.1
	50대	225	22.5
학력	초등학교 졸업	2	0.2
	중학교 졸업	3	0.3
	고등학교 졸업	197	19.7
	2-3년제 대학 졸업	175	17.5
	4년제 대학교 졸업	553	55.3
	대학원 졸업 이상	70	7

IV. 연구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

먼저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과 관련된 응답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 평균

문항	평균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규제의 필요성	5.15	5.05	5.24	5.05	5.10	5.20	5.23
규제의 긍정성	4.46	4.38	4.53	4.50	4.47	4.43	4.43
규제의 사회적 변화 효과	4.79	4.81	4.76	4.65	4.82	4.76	4.90
규제의 국민 삶의 기여	4.39	4.34	4.44	4.18	4.38	4.38	4.60

규제가 필요한가, 규제가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규제가 사회적으로 원하는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7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규제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규제는 필요하고 긍정적이며, 삶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규제 완화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규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제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분석		차이분석			
			t값	유의 수준	t값	단축	양측	
규제의 필요성	20대	5.05	1.13	1.359	0.254	-1.581	0.057	0.115
	30대	5.10	0.99					
	40대	5.20	1.03					
	50대	5.23	1.25					
규제의 긍정성	20대	4.50	1.19	0.215	0.886	0.604	0.273	0.546
	30대	4.47	1.13					
	40대	4.43	1.10					
	50대	4.43	1.23					
규제의 사회적 변화 효과	20대	4.65	1.20	1.910	0.126	-2.318	0.010	0.021
	30대	4.82	1.12					
	40대	4.76	1.18					
	50대	4.90	1.07					
규제의 국민 삶의 기여	20대	4.18	1.34	4.246	0.005	-3.492	0.000	0.001
	30대	4.38	1.25					
	40대	4.38	1.20					
	50대	4.60	1.21					

* 연령 차이분석의 경우 20대/50대 비교 분석¹⁾

분산분석의 경우에는 규제가 국민 삶에 기여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규제가 삶에 기여한다고 보았지만, 20대는 그 정도가 낮았다.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가 국민 삶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20대와 50대를 비교한 t 분석에서는 규제가 사회적 변화 효과와 규제의 국민 삶의 기여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었지만, 50대는 20대보다 훨씬 더 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 규제의 집행

규제의 집행 측면에서의 인식 평균치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별 규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분산분석으로 전체 차이를 살펴볼 경우 연령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만 나타날 뿐 어느 연령대의 수치가 높은지 여부는 검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대와 50대를 비교함으로써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간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4. 규제 집행 평균

문항	평균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규제의 우위성(시장보다)	4.47	4.44	4.49	4.32	4.45	4.51	4.57
규제 준수성	3.61	3.56	3.65	3.48	3.59	3.65	3.68
규제에 대한 국민의 협력	4.39	4.35	4.44	4.18	4.37	4.40	4.63
규제의 문제 해결성	3.68	3.69	3.67	3.55	3.66	3.72	3.80
개인 자유 희생 가능	3.87	3.83	3.91	3.74	3.83	3.93	3.97

규제의 집행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선시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시장의 힘보다 규제의 힘이 더 크다고 보고 있었고, 따라서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가 집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 국민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규제의 힘과 국민의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실제 규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규제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규제 집행과 관련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규제의 집행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분석		차이분석			
			t값	유의 수준	t값	단측	양측	
규제의 우위성(시장보다)	20대	4.32	1.17	1.898	0.128	-2.265	0.012	0.024
	30대	4.45	1.17					
	40대	4.51	1.14					
	50대	4.57	1.14					
규제 준수성	20대	3.48	1.38	1.007	0.389	-1.578	0.058	0.115
	30대	3.59	1.29					
	40대	3.65	1.41					
	50대	3.68	1.34					

규제에 대한 국민의 협력	20대	4.18	1.28	5.469	0.001	-3.899	0.000	0.000
	30대	4.37	1.14					
	40대	4.40	1.15					
	50대	4.63	1.17					
규제의 문제 해결성	20대	3.55	1.36	1.291	0.276	-1.905	0.029	0.057
	30대	3.66	1.36					
	40대	3.72	1.41					
	50대	3.80	1.39					
개인 자유 희생 가능	20대	3.74	1.45	1.333	0.262	-1.759	0.040	0.079
	30대	3.83	1.38					
	40대	3.93	1.37					
	50대	3.97	1.39					

* 연령 차이분석의 경우 20대/50대 비교 분석

분산분석의 경우 규제에 대한 국민의 협력 측면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대한 국민의 협력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4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었지만, 20대는 4.18, 50대는 4.63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제에 대한 국민의 협력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규제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이 분석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20대와 50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50대가 20대보다 규제의 집행 능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규제의 문제 해결성, 규제 준수성 등 모든 항목에서 50대가 20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았다.

3. 규제의 내용

규제의 내용에 대한 인식 평균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규제의 내용 평균

문항	평균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규제 내용 신뢰	3.63	3.64	3.62	3.52	3.63	3.63	3.76
규제의 전문성	3.97	3.93	4.00	3.85	3.93	3.94	4.15
규제의 효율성	3.79	3.74	3.83	3.63	3.80	3.79	3.93
규제의 공정성	3.74	3.72	3.75	3.59	3.74	3.75	3.85
규제의 도덕성	3.77	3.72	3.81	3.66	3.79	3.71	3.92

규제의 내용을 신뢰하는가, 규제가 전문성을 띠고 있는가, 규제가 효율적인가, 규제가 공정한가, 규제 내용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등 규제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서 4점 이하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국민들은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가 정당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세부적인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총론적으로는 옳지만, 각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 내용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규제의 내용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분석		차이분석			
			f값	유의 수준	t값	단측	양측	
규제 내용 신뢰	20대	3.52	1.32	1.227	0.298	-1.926	0.027	0.055
	30대	3.63	1.30					
	40대	3.63	1.39					
	50대	3.76	1.35					
규제의 전문성	20대	3.85	1.36	1.974	0.116	-2.313	0.011	0.021
	30대	3.93	1.35					
	40대	3.94	1.34					
	50대	4.15	1.36					
규제의 효율성	20대	3.63	1.35	1.839	0.138	-2.328	0.010	0.020
	30대	3.80	1.36					
	40대	3.79	1.37					
	50대	3.93	1.39					
규제의 공정성	20대	3.59	1.35	1.401	0.241	-2.040	0.021	0.042
	30대	3.74	1.36					
	40대	3.75	1.39					
	50대	3.85	1.36					
규제의 도덕성	20대	3.66	1.40	1.557	0.198	-1.947	0.026	0.052
	30대	3.79	1.36					
	40대	3.71	1.34					
	50대	3.92	1.40					

* 연령 차이분석의 경우 20대/50대 비교 분석

규제의 내용과 관련해서 분산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와 50대를 비교한 t-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20대는 50대에 비해 규제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규제의 내용에 대해 더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규제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50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는 규제의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4. 규제 증가의 영향

규제가 보다 증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규제 증가 영향 평균

문항	평균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규제 증가의 필요성	3.90	3.84	3.97	3.89	4.00	3.93	3.76
규제증가와 발전	3.55	3.57	3.54	3.50	3.66	3.57	3.46
대기업 규제 증가와 발전	4.15	4.25	4.04	4.15	4.26	4.22	3.91
중소기업 규제 증가와 발전	3.58	3.59	3.56	3.57	3.70	3.57	3.46

일반적으로 규제 증가의 필요성, 규제가 증가하면 보다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긍정적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증가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규제 증가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규제 증가 차이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산 분석		차이분석			
			f값	유의 수준	t값	단측	양측	
규제 증가의 필요성	20대	3.89	1.22	1.572	0.195	1.047	0.148	0.296
	30대	4.00	1.18					
	40대	3.93	1.28					
	50대	3.76	1.40					

규제 증가와 발전	20대	3.50	1.40	1.019	0.383	0.324	0.373	0.746
	30대	3.66	1.33					
	40대	3.57	1.36					
	50대	3.46	1.37					
대기업 규제 증가와 발전	20대	4.15	1.24	3.609	0.013	2.008	0.023	0.045
	30대	4.26	1.29					
	40대	4.22	1.22					
	50대	3.91	1.33					
중소 기업 규제 증가와 발전	20대	3.57	1.27	1.457	0.225	0.878	0.190	0.380
	30대	3.70	1.27					
	40대	3.57	1.23					
	50대	3.46	1.36					

* 연령 차이분석의 경우 20대/50대 비교 분석

분산 분석의 경우 대기업 규제 증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는 대기업 규제 증가가 발전과 연결된다는 사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20대에서 40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30대와 40대 대기업 규제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0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낮다. 그리고 50대는 대기업 규제 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t 분석 결과에서도 대기업 규제에 대한 것만 차이가 존재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20대와 50대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규제 증가의 필요성, 규제 증가가 발전과 연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50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20대는 긍정적으로 본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인식은 동일하였다.

V. 결론

지금까지의 주요 결론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규제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국민들은 경제발전, 사회복지 등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 완화는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과 대비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국민들은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에 필요한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은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규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제의 전문성, 효율성, 공정성 등 규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총론적으로는 규제를 인정하지만, 각론적으로는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셋째, 규제가 필요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규제 증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규제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어, 규제에 대해 상당히 다면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규제에 대한 인식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규제의 전문성 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50대와 20대 사이의 인식 차이가 반대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규제 인식에 대해 세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규제에 대한 평가, 시행 등에 대해서도 연령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위에 대한 평가, 기업에 대한 평가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행위의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가 규제이고, 대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규제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부 행위 및 대기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고, 이런 정부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정부 행위인 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 및 대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런 정부 및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규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고연령대는 박정희 정권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 그리고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생존해왔다. 이러한 경험이 현재까지 정부 행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의 주요 활동인 규제에 대해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에 대해 이러한 연령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규제 정책 제정 및 집행과 관련해서 규제 대상자의 연령, 규제 홍보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규제 대상자가 저연령대일 경우 규제 제정 및 규제 집행에서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으며, 규제 대상자의 순응과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 연령대에 따라 규제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규제 접근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박철현, "한국의 연령-범죄곡선," 한국인구학, 제24권, 제2호, pp.149-177, 2001.
- [2] 이민식, 공정식, 이수정, "연령과 살인범의 양형편차: 비선형 효과의 검토,"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pp.215-240, 2009.
- [3] 이영란,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 -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pp.189-213, 2011.
- [4] 정은경, "한국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하여," 형사정책연구, 제91권, pp.267-291, 2012.
- [5] 정은경,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제98권, pp.101-122, 2014.
- [6] 김진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권, 제3호, pp.127-154, 2007.
- [7] 김기승, 조용수, "연령세대별 빈곤 진출입(entry-exit) 결정요인," 응용경제, 제9권, 제3호, pp.189-220, 2007.
- [8] 김진욱, 정의철, "도시 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1호, pp.33-60, 2010.
- [9] 김기승, "연령세대별 고용형태 변화 연구," 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pp.95-110, 2011.
- [10] 백학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3호, pp.75-105, 2013.
- [11] Davids, Matthews and Wong, "Aging and Work" in Cooper and Robertson(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6, 1991.
- [12] K. Labich, "The New Unemployed," Fortune, March 8. 1993.
- [13] 이갑윤,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제26권, pp.93-116, 2008.
- [14] 김재한,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3호, pp.183-208, 2011.
- [15] 지병근,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결정요인의 연령별 다양성," 선거연구, 제3권, 제1호, pp.49-72, 2013.
- [16] 최유정, 최셋별, "연령대별 세대 의식과 정치적 태도를 통해 본 세대의 경계 -정치적 세대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 "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9권, 제2호, pp.159-201, 2013.
- [17] P. Cooper, *The War against Regulation*, Kansas, 2009.
- [18] 이용규, 이성로,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규제개혁에 대한 관료의 인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1(0), pp.101-118, 2001.
- [19] D. Moss and J. Cisternino, *New Perspectives on Regulation*, The Tobin Project, 2009.
- [20] 주효진,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관료들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2호, pp.1-22, 2004.

- [21] 이해영, 김정혜,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2호, pp.181-210, 2007.
- [22] 최성락, 이해영, 김난영, *규제 민원 행정 불만요인 분석*, 감사원, 2014.
- [23] 김봉현, 유중곤, "비교광고 규제변화에 따른 광고실무자들의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14권, 제4호, pp.281-304, 2003.
- [24] 이병식,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인식 분석," 고등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121-143, 2003.
- [25] 최창호, "규제완화 전후 제조업 화주의 인식 변화 연구," 로지스틱스연구, 제14권, 제1호, pp.23-42, 2006.
- [26] 이수범, "방송광고 규제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고인과 소비자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18권, 제3호, pp.7-28, 2007.
- [27] 옥화영,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영향요인: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인식차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3호, pp.53-75, 2008.
- [28] 이미홍, 조영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규제 지역별 주민의 제도 인식 차이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2호, pp.123-143, 2008.
- [29] 박우귀, 권상희, "방송통신내용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인식차이 연구: 융합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성격과 규제인식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4권, pp.7-48, 2014.
- [30] 안승호, 채명기, 이현재, "기업의 자연환경규제 인식유형에 따른 규제순응 차이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제15권, 제1호, pp.5-22, 2012.
- [31] Jordana and Levi-Faur, *The Politics of regulation*, Edward Elgar, 2004.

저자 소개

최성락(Seong-Rak Choi)

중신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정책학 일반, 규제 정책